Morning Meeting Brief

2009년 3월 27일

Highlights

Industry

- **전기전자 산업**: 엔고 영향으로 국내 전기전자업체들의 상대적 경쟁력 강화되는 중 ..... **이승혁**

Company

- **동아제약** (Buy유지/TP:110,000원유지): '팔방미인' ..... **권해순**
- **두산중공업** (Buy유지/TP:94,000원유지): '블루골드와 빛을 가진 기업' ..... **하석원**
- **희림** (Buy유지/TP:12,500원유지):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 설계 경력은 희림의 귀한 자산이 될 것 ..... **유철환/이훈**

Overnight New York

DOW: 7924.56p (+174.75p, +2.25%) **NASDAQ: 1587.00 (+58.05p, +3.80%)**

- 뉴욕증시는 베스트바이와 GM 등 기업실적 호조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 마감
- 베스트바이는 경쟁사였던 서킷시티의 파산이 호재로 작용 12.58% 오른 37.67달러에 마감. 베스트바이의 4분기 순이익은 5억7,000만달러(주당 1.35달러)로 전년동기 7억3,700만달러(주당 1.71달러)보다 감소했지만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아
- GM은 전미자동차노조(UAW) 조합원 약 6만명 가운데 목표치를 웃도는 6,000명 이상이 조기퇴직 권고를 받아들여 정부로부터 추가 자금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 GM은 13.38% 오른 3.39달러에 마감
- 이날 발표된 지난해 4분기 GDP는 26년 만의 최악이었으나 월가의 전망치(-6.6%) 보다는 호전. 4분기 GDP 성장률은 수정치 마이너스 6.2%에서 마이너스 6.3%로 확정
- 골드만삭스는 리처치인모션의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해 기술주들이 강세. 리서치인모션은 4.96% 오른 45.05달러, 델은 1.77% 오른 10.35달러에 마감
- 식품업체 콘아그라는 제품 가격 인하 발표에 힘입어 제조업 관련주 강세의 선두. 콘아그라는 8.93% 오른 16.95달러에 마감
-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5월 인도분 WTI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1.58달러(3%) 상승한 54.35달러 기록

한국물 DR

- KB금융 +6.83%, 우리금융 +3.12%, 신한금융 +5.12%, LG디스플레이 +7.03%, 하이닉스 +9.09%, 한국전력 +1.38%, POSCO +1.64%, SK텔레콤 +4.42%

Morning Meeting Brief는 당사 Research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www.wooriwm.com)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동 자료상 투자의견이 제시된 기업 중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우리투자증권은 해당기업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Industry

전기전자 산업 Update

이승혁 (02-768-7468)

엔고 영향으로 국내 전기전자업체들의 상대적 경쟁력 강화되는 중

- **엔고 영향으로 일본 전기전자 업체들의 경쟁력 더욱 약화되고 있는 상황**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엔고 영향으로 일본 전기전자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격 경쟁력 약화는 일본 전기전자 업체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또한 연구개발과 마케팅 부문에의 소극적인 지출이 오히려 일본 전기전자 업체들의 본질적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국내 업체들이 IMF 이후인 2000년도 초반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했던 것과 달리 일본 업체들은 오히려 사업다각화에 집중한 결과 해당 제품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 **일본 전자제품/부품 생산액의 역성장률이 심화되는 반면 국내 업체들은 상대적 수혜가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엔고 영향과 본질적 경쟁력 약화로 일본 전기전자 업체들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욱 강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전자부품 생산지수 증가율이 2008년 7월부터 역성장(y-y)을 시작했으며 시간이 갈수록 역성장률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일본 전자제품 생산액 증가율 역시 2008년 2월부터 역성장(y-y) 추세에 진입했고, 시간이 갈수록 역성장률이 심화되고 있다. 반면 일본 전기전자 업체들의 가장 강력한 경쟁업체인 국내 전기전자 업체들의 경우 일본 업체들의 부진에 따른 수혜가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세트와 부품에서 상대적 점유율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 제품인 TV의 경우 월별 수출액이 전년 12월을 바닥으로 역성장률이 감소하고 있고, 대표적 부품인 MLCC의 경우 월별 수출액이 전년 12월을 바닥으로 역시 역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기의 경우 1월을 바닥으로 MLCC의 가동률이 완연하게 상승 중인 것으로 추정되어 일본 경쟁업체들 대비 상대적 점유율 상승이 나타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 **한/EU FTA를 통한 관세인하로 국내 전기전자 업종에는 긍정적인 효과 나타날 전망**

  24일 한/EU의 자유무역협정(FTA)가 잠정 합의에 도달하였다. 현재 EU로의 IT 수출 상황을 살펴보면, 무선통신기기가 EU로의 수출액 중에서 13%를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를 포함한 IT가 EU로의 수출액 중에서 2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무선통신기기 수출액 중에서 유럽대륙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환급,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 등의 이슈가 아직 남아 있지만 한/EU FTA를 통한 관세인하로 국내 전기전자업종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 **한/EU FTA로 휴대폰 제조 업체들의 수혜가 가장 클 전망이고, 전자부품 업체들 역시 수혜 예상**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1) 무선통신기기가 IT 중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 특히 최근 유럽 지역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맞물러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는 점이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2) 유럽 전기전자 업체들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강화된 국내 부품 사용 비중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부품업체들의 수혜가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키아, 지멘스, 보쉬 등의 유럽 전기전자 업체들로 수출하는 부품 업체들의 수혜가 전망된다. 하지만 3) TV의 경우 14%의 관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TV세트 수출의 경우는 수혜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유럽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TV 제조업체들로의 부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TV부품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또한 4) 중국산 저가 셋톱박스에 대해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는 국내 셋톱박스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Company

동아제약 (000640.KS/ Buy유지/ TP:110,000원유지/ CP:84,600원) Update

권해순 (02-768-7977)

'팔방미인'

- **투자의견 Buy 및 목표주가 110,000원 유지**

동아제약에 대해 12개월 목표주가 110,000원 및 투자의견 Buy를 유지한다. 당사는 동아제약을 최선호 종목으로 제시한다. 1) 2009년에는 내수부문 고성장세로 높은 실적 모멘텀(영업이익 증가율 +17% y-y)이 예상되고, 2) 2010년부터는 수출부문 및 신약 개발 성과가 가시화 될 전망이다. 또한 3) 현 주가 수준은 2009년 예상실적 기준 PER 13배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주력제품 스티렌의 제네릭화와 수출 성과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동아제약 주가는 연초 이후 Kospi 대비 약 20% 하락하였다. 당사는 이러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판단하며 현 시점을 매수시기로 활용할 것을 적극 권유한다.

- **2009년에 처방의약품 부문 국내 1위로 등극할 전망**

동아제약은 2009년에 처방의약품 부문 국내 1위로 등극할 전망이다. 시장 점유율 기준, 2004년 5위였던 동사의 처방의약품 부문은 지난 2월, 2위 한미약품과 유사한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동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면 시장 점유율의 빠른 상승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1분기 실적도 처방의약품 부문(총 매출액의 약 63%)의 고성장(+30% y-y)으로 당사 추정치를 충족(시장 컨센서스 상회)할 전망이다.

- **글로벌 신약 보유, 수출 부문도 유망**

항생제 TR-701의 글로벌 임상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 동 연구과제는 2007년 미국의 Trius사에 기술 수출되었으며 현재 글로벌 임상 2상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총 17백만달러의 로열티가 시판 전까지 유입될 전망인데, 현재까지 약 10%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09년 수출액은 약 380억원으로 50%(y-y) 성장할 전망이다(회사 전망치는 약 500억원). 중남미 등으로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수출지역 및 수출품목 확대로 50%(y-y) 성장이 예상된다.

동아제약 실적 전망 (단위: 십억원, 원, 배,%)

		2008	2009E	2010F	2011F
매출액	- 수정 후	702.3	796.4	870.2	967.3
	- 수정 전		786.5	878.7	974.2
	- 변동률		1.3	-1.0	-0.7
영업이익	- 수정 후	81.7	95.4	115.9	138.4
	- 수정 전		97.5	133.9	149.6
	- 변동률		-2.1	-13.4	-7.5
EBITDA		100.8	115.1	136.4	165.1
순이익		43.4	66.5	86.0	104.6
EPS	- 수정 후	4,148	6,356	8,223	10,000
	- 수정 전		6,698	8,916	10,208
	- 변동률		-5.1	-7.8	-2.0
P/E		22.8	13.3	10.3	8.5
P/B		2.8	2.2	1.8	1.5
EV/EBITDA		11.5	8.9	7.2	5.8
ROE		12.8	17.5	19.2	19.6

자료: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전망

두산중공업 (034020.KS/Buy유지/ TP:94,000원유지/CP:73,000원) Update

하석원 (02-768-7608)

'블루골드와 빛을 가진 기업'

- **투자의견 Buy 및 목표주가 94,000원 유지**

  동사에 대해 투자의견 Buy 및 목표주가 94,000원을 유지한다. 동사에 대한 투자포인트는 물 부족 심화로 인한 담수 및 수처리 수요 확대, 온실가스 규제 및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원자력, 석탄)부문의 고성장세 지속, 자회사 실적회복에 대한 기대감, 두산그룹의 재무 리스크 축소 등 이다.

- **'Blue Gold' 시대 개막**

  '블루골드'의 시대 개막은 동사를 글로벌 담수플랜트업체로 성장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는 지구 온난화 심화, 산업화 및 정수 및 하수 처리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수질 오염 등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UN에 의하면 2025년 약 27억명(전 세계 20%수준)이 심각한 물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현재 수처리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동사는 담수화 플랜트 이외에 수처리(하·폐수 정화 및 바닷물을 생활, 산업 용수로 활용) 기술도 확보하고 있어 향후 수혜가 예상된다. 동사의 담수 매출비중(2008년 기준)은 11%에 불과하지만 중동 이외에 미주, 유럽 그리고 신흥국가 등 시장 다변화로 인한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 **원자력 발전은 동사의 효자산업**

  향후 원자력 발전시장의 확대는 동사의 원자력 주기기(원자로, 증기발생기, 터빈, 발전기) 수요증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동사는 원자로 노형 중에서 가압경수로(PWR; Pressurized Water Reactor)와 가압중수로(PHWR; 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가압경수로(전세계 65% 차지) 1위 업체인 웨스팅하우스(M/S 55%, 전체시장의 36% 차지)는 동사에서 대부분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동사의 주기기 수요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참고로 동사의 지난해 원자력 발전 주기기의 신규 수주액은 1.2조원(6기, 미주 0.9조원, 국내 0.3조원)을 기록하였다. 수주는 전부 웨스팅하우스(미주지역)이고, 올해에도 4기 이상의 수주가 전망된다.

두산중공업 실적 전망 (단위: 십억원, 원, 배,%)

		2008	2009E	2010F	2011F
매출액	- 수정 후	5,709.7	6,817.9	8,476.4	8,830.6
	- 수정 전		6,740.3	8,510.7	9,531.9
	- 변동률		1.2	-0.4	-7.4
영업이익	- 수정 후	474.4	546.7	767.0	827.9
	- 수정 전		550.8	753.0	843.4
	- 변동률		-0.7	1.9	-1.8
EBITDA		556.7	716.1	977.4	1,076.6
순이익		-65.9	453.9	629.1	691.1
EPS	- 수정 후	-628	4,325	5,994	6,585
	- 수정 전		4,583	5,958	6,997
	- 변동률		-5.9	0.6	-5.9
P/E		na	16.9	12.2	11.1
P/B		2.1	2.1	1.8	1.6
EV/EBITDA		15.0	12.1	8.6	7.3
ROE		-2.3	12.7	15.4	14.7

자료: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전망

- 당사는 "두산중공업"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회사 및 LP(유동성공급자)임을 알려드립니다.

희림 (037440.KQ/Buy유지/TP:12,500원유지/CP:9,410원) update

유철환/이훈 (02-768-7671)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 설계 경력은 희림의 귀한 자산이 될 것

- **'제2롯데월드'사업 승인시 희림의 브랜드가치의 큰 폭 개선 기대**

  희림에 대해 투자의견 Buy와 12개월 목표주가 12,500원(RIM: Market risk premium 8.0%, 베타 0.7, CoE 10.9% 가정)을 유지한다. '제2롯데월드' 사업이 승인될 경우 희림의 외형확대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두 가지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아직 '제2롯데월드'에 대한 건축허용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공항 비행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동 프로젝트의 승인 가능성은 매우 높다. 동사는 '제2롯데월드'에 대한 계획설계를 수행한 업체로, 이후 사업 추진이 결정될 시에 이후 상세설계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제2롯데월드' 사업 승인의 가능성이 증대된 점은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인 촉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수주 금액보다 랜드마크 건축물 설계경력을 통한 브랜드가치 개선이 더욱 긍정적**

  '제2롯데월드' 사업 수주시 수주금액 자체보다 초고층 건물에 대한 설계 히스토리를 확보하게 된다는 점이 희림에 더욱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제2롯데월드'의 총 사업비는 1조 7,000억원에서 2조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 중 1조원 수준이 공사비로 추정된다. 총 공사비의 3% 정도가 설계용역비로 제공되는 국내 설계 시장 특성을 감안한다면 희림의 수주규모는 최대 3백억원까지 가능할 전망이다(초고층빌딩 및 테마파크, 주변경관조성 설계 모두 수주시). 동사의 '제2롯데월드' 설계 수주 가능성은 대규모라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특히 초고층 건물 설계 경력을 통한 동사의 브랜드가치 제고 효과 점에서 장기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과거 설계경력 및 브랜드가치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 여부가 결정되는 건축설계시장의 특성 상 '제2롯데월드'와 같은 초고층 빌딩의 설계 경력은 향후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 **경기침체 하에서도 안정적인 수주 모멘텀 확인**

  건설경기 불황에서도 최근 90억원 규모의 미군 주거시설 프로젝트 설계용역 수주, '제2롯데월드'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안정적인 수주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음은, 동사의 우월한 경쟁력을 입증해주는 근거로 판단된다. 민간 건설경기 위축으로 전체 건축설계 물량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지만, 동사와 같은 상위 업체에 대한 수주 집중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건축설계시장의 '쏠림현상'은 동사의 사업안정성 확보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희림 실적 전망 (단위: 십억원, 원, 배, %)

	2008	2009E	2010F	2011F
매출액	157.2	198.5	212.0	229.1
영업이익	17.1	21.8	23.2	26.4
EBITDA	19.4	24.1	25.5	28.6
순이익	12.1	15.3	16.4	20.9
EPS	906	1,187	1,267	1,561
P/E	10.4	7.9	7.4	6.0
P/B	2.6	2.1	1.8	1.4
EV/EBITDA	6.3	5.0	4.8	3.4
ROE	24.1	25.5	23.1	23.4

자료: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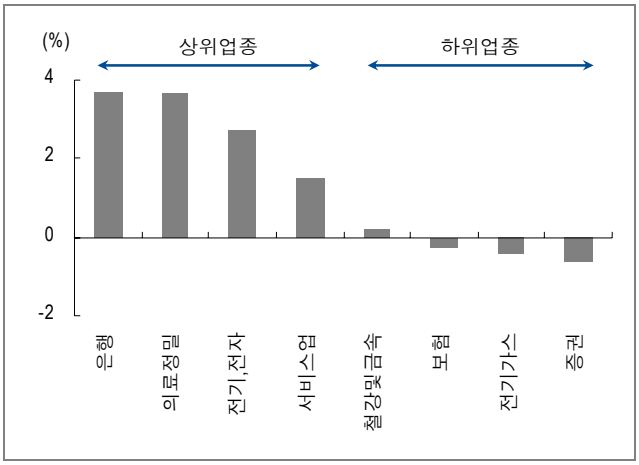
Domestic Market

	Trading Summary	Index 26-Mar	25-Mar	24-Mar	23-Mar	20-Mar	Performance/Spread 1Day	1Week	1Month	1Year
거	주가지수(P,%)	1,243.80	1,229.02	1,221.70	1,199.50	1,170.94	1.20	7.06	16.91	-25.95
래	거래량(백만주)	587	494	512	461	375	92	123	76	196
소	거래대금(십억원)	5,895	5,114	5,895	4,749	4,229	781	962	1,330	843
코	주가지수(P,%)	427.27	419.29	412.39	409.23	400.71	1.90	8.46	15.44	-32.00
스	거래량(백만주)	652	682	596	628	695	-30	-29	-35	108
닥	거래대금(십억원)	1,990	1,657	1,615	1,490	1,385	333	432	403	723
	투자자별순매수(순매도)									
거	외국인(십억원)	59	10	382	214	102	59	767	-165	-20,994
래	국내기관(십억원)	59	-14	-190	118	55	59	29	1,645	16,550
소	개인(십억원)	-86	2	-186	-342	-155	-86	-768	-2,060	-543
코	외국인(십억원)	-9	-11	-4	0	-12	-9	-34	-140	-3,159
스	국내기관(십억원)	16	13	-13	9	17	16	42	137	927
닥	개인(십억원)	-9	3	28	-8	-5	-9	9	59	916

주: 투자자별순매수의 Performance/Spread는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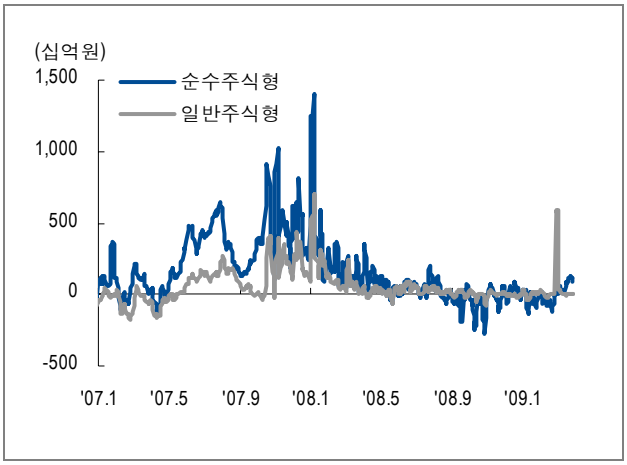
Market Indicators									
3 년만기 국고채(%,%P)	3.71	3.64	3.64	3.55	3.49	0.07	0.22	-0.19	-1.57
3 년만기 회사채(AA-)(%,%P)	6.07	6.02	6.02	5.94	5.92	0.05	0.16	-0.81	-0.10
콜금리(%,%P)	1.88	1.56	1.63	1.74	1.81	0.32	0.09	0.33	-3.06
시가총액(조원)	704	695	690	678	663	8.91	47.42	102.01	-233.07
원/달러 환율(원,%)	1,330.50	1,363.00	1,383.50	1,391.60	1,412.50	-2.38	-4.69	-12.25	34.83
원/100 엔 환율(원,%)	1,419.43	1,408.37	1,438.59	1,460.88	1,470.67	0.79	-3.46	-10.36	44.20
증시주변자금									
고객예탁금(십억원)	-	12,272	12,035	11,776	11,730	-	412	1,546	2,843
미수금(십억원)	-	127	147	165	136	-	-9	-66	-46
신용잔고(십억원)	-	1,908	1,858	1,700	2,008	-	-101	-27	-1,527
순수주식형수익증권(십억원)	-	139,548	139,495	139,315	139,080	-	557	1,518	4,937

Daily Sector Performance



자료: KRX

Domestic Equity Fund Flow



자료: AMAK, Zero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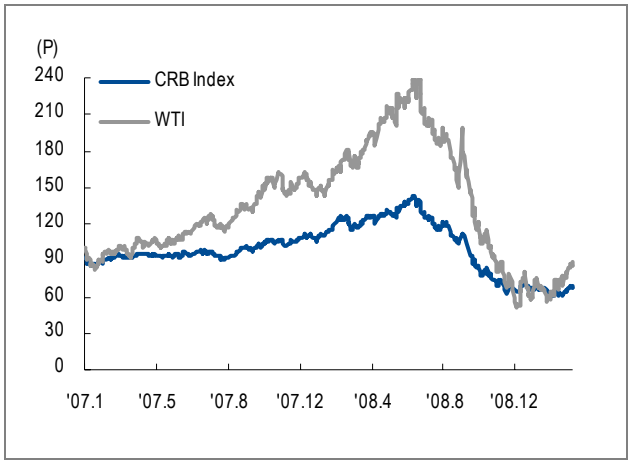
Global Market

		Index					Performance/Spread			
해외주요증시		26-Mar	25-Mar	24-Mar	23-Mar	20-Mar	1Day	1Week	1Month	1Year
미국	NASDAQ(P,%)	1,587	1,529	1,517	1,556	1,457	4.65	6.98	10.07	-31.72
	S&P500(P,%)	833	814	806	823	769	3.32	6.23	7.72	-37.90
	Dow Jones(P,%)	7,925	7,750	7,660	7,776	7,278	3.45	7.08	7.80	-36.21
유럽	영국(P,%)	3,925	3,900	3,911	3,953	3,843	0.35	2.84	2.85	-30.66
	독일(P,%)	4,259	4,223	4,187	4,176	4,069	1.72	5.34	9.33	-34.36
아시아	일본(P,%)	8,636	8,480	8,488	8,216	7,946	1.74	8.69	18.82	-32.03
	대만(P,%)	5,387	5,346	5,242	5,124	4,962	2.75	6.96	21.59	-38.57
	중국(P,%)	8,489	7,967	8,063	7,960	7,496	5.28	9.80	20.11	-28.42
	인도(P,%)	10,003	9,668	9,471	9,424	8,967	5.62	11.12	13.39	-37.82
라틴	멕시코(P,%)	20,542	20,273	20,243	20,346	19,363	1.48	4.83	12.28	-31.66
	브라질(P,%)	42,589	41,799	41,476	42,439	40,076	2.68	5.28	10.01	-30.65
국제금리 및 환율										
금리	미국채 10 년(%,%P)	2.74	2.78	2.70	2.65	2.63	0.04	0.14	-0.06	-0.72
	스프레드(10 년-2 년) (%,%P)	1.83	1.83	1.79	1.76	1.77	0.04	0.09	0.01	-0.01
환율	엔/달러(엔,%)	98.43	97.61	98.22	96.49	95.36	0.21	2.99	2.86	-0.67
	달러/유로(달러,%)	1.36	1.35	1.35	1.36	1.36	0.28	0.54	5.94	-13.72
국제 원자재 가격										
	CRB Index(P,%)	228	226	229	230	226	-0.49	1.06	11.70	-42.75
	WTI ($/Barrel,%)	54	52	53	53	51	1.61	5.29	38.94	-48.69
	Gold ($/Troy Ounce,%)	934	921	929	952	954	0.57	-0.19	-5.66	-1.48
	구리($/Metric ton,%)	3,965	3,965	3,975	4,060	3,955	-0.25	-0.85	20.70	-51.53

	1Week (%,%P)			1Month (%,%P)			PE (배)	
Global Company Performance	해외	국내	Gap	해외	국내	Gap	해외	국내
Intel/삼성전자	4.42	5.36	-0.94	24.27	21.93	2.35	36.45	43.74
Micron Technology/하이닉스	14.99	20.12	-5.14	31.06	36.52	-5.47	43.74	-
Philips/LG 전자	8.50	11.90	-3.41	-3.01	31.28	-34.29	14.81	29.09
NTT Docomo/SK 텔레콤	6.15	2.14	4.01	-4.23	0.00	-4.23	15.41	9.86
Google/NHN	7.08	12.79	-5.72	2.27	22.71	-20.44	16.80	19.15
Toyota/현대차	8.94	4.07	4.87	4.53	12.93	-8.40	9.86	9.72
Nippon Steel/POSCO	11.28	9.93	1.36	17.21	20.89	-3.67	8.29	9.73
Exxon Mobil/SK	4.24	18.23	-13.99	-1.19	30.46	-31.65	16.20	7.18
Singapore Airlines/대한항공	8.54	9.05	-0.52	0.59	10.03	-9.44	10.95	22.10
Mitsubishi Heavy/현대중공업	4.93	10.55	-5.62	15.16	17.04	-1.88	25.73	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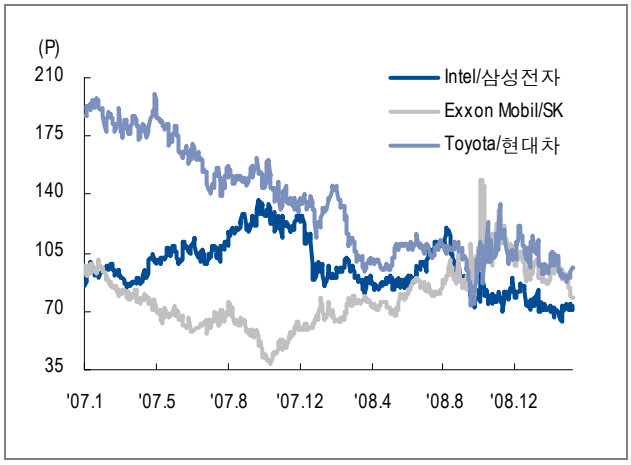
주: 해외=해외주식의 수익률, 국내=국내주식의 수익률, Gap=해외와 국내주식의 수익률의 차

Global Commodities Price Trend



자료: Bloomberg, Dramexchange

Global Company Relative Performance



자료: Bloomberg

<종목 투자등급 (Stock Ratings)>

- 투자등급(Ratings): 목표주가 제시일 현재가 기준으로 향후 12 개월간 종목의 목표수익률에 따라 Strong Buy(Buy 등급 중 High Conviction 종목), Buy(15% 초과), Hold(0%~15%), Reduce(0% 미만)로 구분
- 본 조사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